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HAT I COULDN'T TELL YOU

가제 : 말하지 못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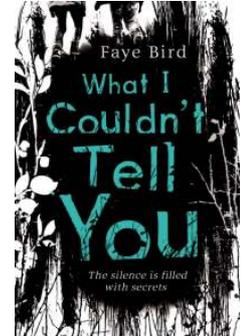
저자 : Faye Bird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6년 5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핑크빛 사랑에 푹 빠진 열일곱 살 소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날의 진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외에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입을 꼭 닫고 사는 테시에 게는 고등학생 언니 로라가 있다. 8주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로라는 엄청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와 코와 위, 팔에 수십 개의 관과 주사바늘을 꽂아야 했고,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사이 여름방학도 끝이 나고, 테시와 로라의 엄마는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도 못한 아빠를 설득해 다시 사무실에 나가도록 하고, 테시와 남동생 제이크도 개학 날 늦지 않게 학교에 가도록 열심히 챙겨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사실을 테시는 다 알고 있었다. 대체 누가, 왜 로라를 이런 상태로 만든건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열일곱 살인 로라는 만난 지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 조에게 푹 빠져 있었다. 꿈쩍한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온 그 날도 로라는 공원에서 조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로라의 일상을 방해했던 대입 시험도 모두 끝났고,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몇 주는 기다려야 했다. 점수에 따라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또 다시 골치 아픈 고민이 시작되겠지만 로라는 일단 코 앞에 다가온 여름방학을 조와 함께 마음껏 즐기기로 마음 먹었다. 엄마는 조와 데이트하는 사실을 안 뒤부터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고 엄마와 그 문제로 싸우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조를 향한 로라의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 날, 로라는 공원에서 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았다. 조는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하고는, “고맙다.”는 알 수 없는 인사를 덧붙였다. 로라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병어리처럼 살아온 여동생이 찾아나선 범인의 실체, 하나 둘씩 쌓이는 진실의 조각들

로라와 조는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늘 빈 주차장이며 공원을 전전했다. 로라네 집은 부모님이 워낙 싫어해서 갈 수가 없고, 조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

아서 조의 집에 가는 건 애기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로라가 사랑을 고백한 그 날, 조는 처음으로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다. 둘은 어둑해지는 공원을 떠나 조의 집으로 향했다. 열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조의 남동생 빌이 혼자 게임을 하면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불편할 정도로 자신을 훑어저라 쳐다보는 빌이 로라는 왠지 이상해 보였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조금 뒤 빌은 어딘가로 외출을 하고, 이제 집에서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도 조는 부엌에서 커다란 가방을 매고 나오더니 로라에게 나가서 놀자고 했다. 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다는 메모를 남겨뒀다고 설명했지만, 로라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조에게 이끌려 할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와보니 커다란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었다. 잔뜩 신이 난 조는 로라에게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했다면서 같이 타고 달리고 싶다고 했다. 로라는 조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며 중간중간 나오는 말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일단 그가 이끄는 대로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조는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해 어느 고가 아래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날 밤, 로라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보고 잠시 후 등과 허리에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 것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사고 당일 로라와 만나던 조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귀는 열려 있는 테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넨다. 로라를 공격한 범인이 조일까? 테시는 로라가 사고 당일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고, 서서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다. 테시는 수수께끼에 휩싸인 그 날의 일을 모두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페이 버드(Faye Bird)는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 뒤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필요한 각본을 제공하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페이버 아동도서 글쓰기 아카데미(Faber Academy's Writing for Children)에서 공부하고 2014년 『My Second Life』를 발표하면서 YA 소설 작가로 데뷔했다.

제목 : HOUR OF THE BEES
가제 : 벌이 살았던 시절
저자 : Lindsay Eagar
출판사: Candlewick
발행일: 2016년 3월 8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서로 세대가 다른 가족들의 관계, 진실과 실제의 본질, 기적의 가능성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려운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열두 살 소녀와 할아버지가 공유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캐롤은 별로 즐겁지가 않다. ‘왜 내게 이런 불운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들이 수영장 파티를 열고 서로의 집에 놀러 가서 밤새도록 같이 놀면서 방학을 신나게 보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뉴멕시코 주 사막 한가운데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그곳 농장에서 양을 키우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치매로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게 된 바람에, 캐롤의 엄마아빠가 농장을 팔고 집도 정리한 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려야만 했다. 캐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괴짜 그 자체였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고집불통에 성질이 너무 고약해서 괴로워했고, 커서 집을 떠난 후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가 크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름 더위가 숨이 막힐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데도, 캐롤은 투명스러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나무, 초록색 유리가 깔린 것 같은 호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불러와 백 년 이상 이어진 가뭄을 해소해준다는 꿀벌들이 등장하는 할아버지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현실과 마법의 세계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졌다. 캐롤은 얼굴조차 모르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였다. 엄마나 아빠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신 나간 노인네가 아무렇게나 지어낸 이야기로 묵살해버리지만, 캐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툭툭대며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언니나 부모님이 자꾸만 하라고 시키는 자질구레한 집안일, 농장을 정리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진 엄마아빠 때문에 뉴멕시코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캐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큰 위안이 되었다. 언제나 “옛날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들, 백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사막과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양을 기르던 할아버지에게 찾아온 갖가지 위험들... 캐롤은 진짜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한 그 이야기들 속에 폭 빠져버렸다.

괴짜 할아버지가 풀어 놓는 환상적인 이야기, 그 속에서 세상을 배워가는 열두 살 소녀

할아버지는 초록색 호숫가에 우뚝 서 있던 마법의 나무가 어느 날 무참히 잘려나가자 그 나무

에서 살던 벌들이 잔뜩 화가 나서 마을을 떠나버렸고, 그 날부터 지독한 가뭄이 시작됐다고 캐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벌이 되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굳게 믿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캐롤의 머릿속은 이런 고민들로 혼란스러워진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열정을 한없이 불태웠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몹시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마을 전체를 보호해주던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팔찌를 먼 길 떠나는 할머니에게 끼워준 사연, 서로만 바라본 두 사람의 깊은 마음이 오롯이 담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캐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늘 함께하기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에 대해 정말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시작, 경이로운 세상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여러 세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에 담아낸 신비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린지 이거(Lindsay Eagar)는 유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